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english.gpnews.org
일본어판 japan.gpnews.org
중어판 china.g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11. 26 ~ 2023. 12. 16 제291호

21년째 이어지는 기도24·365, 완주감사예배 개최

12월부터 기도 릴레이 '느헤미야52 프로젝트'

열방을 품고 24시간 365일 연속 기도네트워크인 기도24·365본부(이하 기도본부)가 주관하는 '2023 완주감사예배'가 11월 23일 열린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완주감사예배는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서울 마포구 서부교회(담임 임채영 목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기도본부는 1000여 명의 기도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완주감사예배로 초대했다. 전화가 연결된 기도자들 중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기도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본부는 그럴수록 더욱 일어나 나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학개 2:4)는 이번 대회의 주제 말씀으로 기도자들을 격려했다.

기도본부로 연락을 해 온 80세가 넘는 한 기도자는 자신이 기도를 한 지 15년이 지났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이번 완주감사예배에 꼭 가고 싶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올해가 아니면 다시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 멀리 지방에 있는데 차편을 연결해 줄 수 있느냐."면서 생애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완주감사예배 참여를 희망했다. 또 다른 기도자는 "지금까지 완주감사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너무 가고 싶지만, 치매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갈 수가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기도본부는 "안나와 시므온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있는 이러한 기도자들을 두신 주님을 찬양한다."며 "완주감사예배는 우리가 기도를 완주해서, 자격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 완성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완주감사예배에서는 '느헤미야5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일과 성탄절을 제외하고 52일간 쉬지 않고 느헤미야52기도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느헤미야52 프로젝트의 52일 중 하루를 담당하기 원하는 기도자는 먼저 기도본부로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해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24시간 기도를 진행하면 된다. 이 기도 프로젝트는 한국과 해외 어디서든 참여 가능하다.

신청 문의 | 기도본부 010-9440-4365

[GPNEWS]



김창윤·이경란 목사 부부 (열린문교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예배였어요"



경북 칠곡 산골짜기의 굽이진 길을 따라 오르막에 올라서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마을 하나가 눈앞에 펼쳐졌다. 일찍부터 집 앞에 나와 취재진을 기다리고 있던 김창윤 목사가 환

한 얼굴로 취재진을 맞았다. "주님이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다른 건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야죠." 한가로

운 산골집 식탁에 차려진 소박한 목련차 향기 사이로 김 목사가 들려주는 순종의 이야기가 마음을 더욱 향기롭게 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4)

아담과 하와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행복에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세기 1:29-30 KJV)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즉 어떤 악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 동산을 산책한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는지를 친히 설명해 주시

고, 깊은 숲 속에서 쉬고 있는 동물들을 소개해 주신다. 동산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태초의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완전한 장소였다.

하나님은 근엄하고 무뚝뚝한 분이 아니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가족 관계란,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이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러했다. 하



일러스트=김경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물의 도리

요, 사랑의 관계였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취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포르투갈, 아름다운 도시에 가려진 마약의 어두운 그림자



▲ 포르투갈 포르투 도우로 강 풍경. 출처: gnsee의 prayforyou

아름다운 도우로 강을 따라 늘어선 집들 위로 포근한 노을이 비친다. 강 위에 떠 있는 배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눈에 띈다.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그곳에 함께 있을 터였다. 이러 저러한 인생 이야기들이 뒤섞여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항구 도시 포르투에도 어두운 이면이 있다. 바로 마약 중독. 포르투갈은 2001년, 세계 최초로 '마약 비범죄화'를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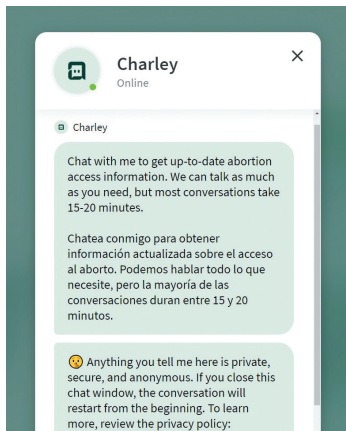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대마·헤로인 등 '여가용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도 괜찮다. 문제는 도시 내 가시적인 마약 문제가 수십 년새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국가 설문조사 결과, 불법 약물 사용 경험에 있는 성인의 비율은 2001년 7.8%에서 2022년 12.8%로 증가했다. 아름다움 속에 실상은 썩고 부패한 모습이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실체다. 이러한 존재적 죄인의 생명을 완전한 죽음과 완전

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마약에 휘청대는 포르투갈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엡 5:12~13) [GPNEWS]

美 낙태 채팅사이트, 청소년들에게 낙태정보와 약 정보 제공 "몰의"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낙태정보를 제공하며, 낙태약 구입방법까지 안내하는 '찰리와 함께 채팅을(chatwithcharley.org, 이하 '찰리')'이란 사이트가 최근 등장해, 여성과 십대 소녀들은 물론 태아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 웹사이트는 인증된 의료진의 감독 없이 심각한 의료 기술인 낙태에 대한 익명의 의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낙태를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찰리(Charley)' 채팅앱이 의사의 처방도 없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찰리'는 누구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최신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나누는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걱정마세요."라며 낙태정보를 질문 답 형태

로 제공하고 있다. '찰리'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최대 몇 개월까지 우편 주문 낙태약을 구매하도록 안내한다. 이 웹사이트는 심지어 포장되지 않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약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락처를 제공한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처방전을 요구하는 연방법에 위배되며, 임신 7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24개 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찰리'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주정부법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 전문가의 도움없이 그들의 건강과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한다. 임신 기간이나 사용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강력한 약물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많은 주에서 챗봇 찰리를 통해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은 임신 7주 이후 낙태약 사용을 금지하는 24개주 낙태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약이다.



▲ 낙태를 상담해주는 챗봇 찰리. 출처: chatwithcharley.org 캡처

한편, 이렇게 위험한 챗봇 뒤에는 글로벌 낙태 지원단체인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전직 간부인 톰 수박과 세실 리처드가 있다. 미국가족계획연맹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공립 학교에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김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죽음의 아젠다(의제)를 홍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낙태지원 조직이다. 이에 TV넥스트는 해당 채팅사이트의 폐쇄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네팔, 지진 영향으로 최소 20개 교회 무너져... 150여 명 사망

네팔 서부 카르날리주 자자르콧 지역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150명 이상 사망하고 1만 8000여 채의 가옥과 최소 2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독교 국제선교단체 '바나바스 에이드(Barnabas Aid)'를 인용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 전했다. 네팔 서부 프로젝트 파트너인 탄카는 "사람들은 주택 손실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여있다. 또 영하의 추운 날씨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이 무너져 어려움에 처한 네팔의 주민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韓 사기 범죄... 5년간 126조 원 피해

국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 명 수준이다. 5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님, 한국의 국민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정직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이는 입술이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美 코네티컷주 초등학교서 방과 후 사탄 클럽 계획... 학부모 반발

미국 코네티컷주 레바논 초등학교에서 오는 12월부터 매달 방과 후 사탄 클럽 모임을 계획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CBN 뉴스가 전했다. 주지축은 "방과 후 사탄 클럽은 아이들을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7가지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과학적, 합리주의적이며 미신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인 케이트 프로콕은 "웹사이트와 나눠주는 여러 가지를 보면 악마의 상징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미국의 다음세대의 영혼을 낚아채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를 끊어주십시오. 다음세대를 오직 진리에 굳게 세우는 교육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16일

- 11월 27일 ~ 12월 2일** ▶ 전남 신안/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1.27~29(10~16시) ▶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11.30(20~22시) ▶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2.1~2(00~24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12.1(10~17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1(12시)~2(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8교회 진행중.

- 12월 4일 ~ 12월 9일**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문**)010-6687-9266, ▶ 강원 춘천 / 춘천중부교회(김**)010-4612-7249, 12.4(0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2.4-9(10~20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2.4-8(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4-6(13~17시) ▶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2.6(11~15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그 외 9교회 진행중.

- 12월 11일 ~ 12월 16일** ▶ 부산 사하 / 영원간병회(김**)010-7227-2560, 12.12(10~12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2.12, 14~16(20~22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2.14(0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2.16(09~21시) ▶ 경남 진영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1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선교신문’ 만들며 선교사의 삶 준비하는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이사장 김용의 선교사)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통해 2~4페이지 분량의 선교신문을 제작하며, 글쓰기와 편집 등 문서선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이 학교 교육선교사 이종희 교사는 “복음스터디 수업활동 중 ‘복음과 선교’ 주간에 복음과 선교가 학생들의 마음에 내면화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조별 신문만들기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선교완성신문’, ‘선교일보’, ‘M&N(Mission & News)’, 기도부흥선교신문, 복음기도신문, 다음세대선교일보, HBR선교일보 등 다양한 제호로 신문을 만든 7, 8학년 학생들은 열방을 위한 기도정보, 학교 교사 인터뷰, 서평,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직접 작성하며 타블로이드판 형태의 신문을 직접 펜으로 쓴 원고와 사진 등을 활용, 편집 제작했다.

선교완성신문을 제작한 학생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을 정리한 ‘수개월 피 비린내 나는 전투’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소식을 정리한데 이어, 기사 말미에 마태복음 5장 39~40절 말씀을 덧붙여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라는 말씀을 기록하며 이 땅의 분쟁이 조속히 끝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말씀을 첨부했다.



▲ 복음스터디 수업시간에 만든 선교신문을 학생들이 살펴보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또 ‘M&N’ 신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는 칼럼을 통해 김예진 학생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내게는 믿음이 누려지는 것 같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여전히 내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쉬운 길”이라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다짐했다.

또 학생들은 이 학교 조완순 교장선생님 인터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 앞으로의 선교 계획’ 등을 질문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기록했다.

‘기도부흥선교신문’이란 제호의 신문에서 김세윤 학생은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헤브론원형학교에 왔다. 선교사라면 지식, 돈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복음기도신문’이라는 제호의 신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쓴 양소명 학생은 “이 책은 맥스웰 목사님의 강한 도전으로 인해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내용의 책”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면 실패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이며, 실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독후감을 소개했다.

또 ‘다음세대 선교일보’에서 이찬영 학생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더 이상 죄에서 뒹굴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자.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나눴다.

‘HBR선교일보’ 1면에서 K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안식년차 입국해 한 학기 동안 교사로 재직 중인 김형종 교사를 인터뷰한 학생들은 교육선교사인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선교사로서 순종의 삶을 간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희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선교사인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며 부르심을 확증하기도 하고, 자신을 선교사로 더욱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며 또 “학생들이 배운 진리 안에서 칼럼을 쓰면서 믿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은혜와 기도 수업인 기도·24365 시간을 통해 갖게 된 열방을 보는 안목으로 글을 쓰고, 전도를 위한 ‘복음의 소리’를 통해 학생들이 진지하고 정성껏 잘 기록했다.”고 소감을 나눴다.

2013년에 개교한 헤브론원형학교는 장래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초등학생 4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주간 학습 형태로 진행되는 학교다. 또 매년 10~20명의 졸업생은 2년간의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졸업과 함께 이 학교가 협력관계를 맺은 순회선교단, OM선교회, OMF, WEC국제선교회 등의 선교단체에 위탁해 선교현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동안 90여 명의 졸업생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단기선교사로 사역을 마쳤거나 현재 사역하며 장기선교사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GPNEWS]



종족 갈등 겪은 인도 마니푸르 메이테이 기독교인, 계속된 고난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힌두교 폭도들의 공격으로 교회들이 위협에 처해 있는 추라찬드푸르의 메이테이족 기독교인들이 동족 힌두교도와 함께 쿠키족 기독교인으로부터 2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크리스챤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주로 기독교 부족 공동체인 쿠키족과 마니푸르의 가장 크고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메이테이족 사이의 긴장은 몇 주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5월, 수십 채의 집이 불태워졌으며, 수백 명의 주민들은 숲속으로 대피했다. 폭력사태가 발생한 첫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지금까지 6개월 간의 폭력으로 총 사망자 수는 최소 180명이다.

추라찬드푸르 외곽과 수도 임팔(Imphal)에서의 공격은 메이테이족도들이 주도했으며, 수천 명의 쿠키족들이 집과 지역을 떠났다.

추라찬드푸르에 있는 인도 복음주의 자유 교회의 코이렐 목사는

“추라찬드푸르에 21개의 메이테이 교회도 있었다.”며 “기독교인들은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메이테이 기독교인은 마니푸르 인구의 1.06%밖에 되지 않는 반면, 메이테이 힌두교도는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메이테이 기독교인 구호활동가 뉴마이는 지난 5월의 공격 이후,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에, 그들은 쿠키족과 같은 편으로 여겨지고 메이테이 공동체를 공격한다고 비난받았다고 말했다.

메이테이 기독교교회평의회 O. 쿠마르 회장은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메이테이 힌두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으며 쿠키-미조(Kuki-Mizo) 부족도 아니다.”라면서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메이테이 힌두교도들은 기독교인을 쿠키족으로 여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편견 때문에 메이테이 무장 세력은 언덕 지역 곳곳의 메이테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했다. 쿠마르 회장은 지난 5월, 무장 메이테이 단체인 아람바이 텅골과 메이테이 리퐁이 메이테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고 파손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도자는 “메이테이 사람들은 모든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이 쿠키족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메이테이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메이테이 교회는 종종 쿠키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쿠키족과 나가(Naga) 기독교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추라찬드푸르에는 5월 폭력사태 이전까지 1만 명이 넘는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이 살았다. 익명의 메이테이 기독교 지도자는 “오늘날 700여 명의 메이테이 기독교인들

이 갈 곳이 없어 구호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테이 기독교도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메이테이 힌두교도들의 압력 때문에 임팔이나 계곡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심지어 캠프 내에서도, 폭력적 메이테이 단체들이 평신도들과 목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받고 있다.

9월 1일 기준, 마니푸르 전역의 351개 구호 캠프에 5만 8000여 명(5월의 3만 8000명에서 증가됨)이 살고 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2만 2000여 명과 8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이 포함돼 있다. 약 2만 4000명의 캠프 거주자들이 메이테이 공동체 출신이지만, 이들 중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는 불분명하다.

쿠마르 회장은 “누가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을 도울지 궁금하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구호가 오면 모든 것은 쿠키 기독교 지역으



▲ 인도 마니푸르 내전 지역. 제공: 원정하로 간다. 메이테이족에게 구호가 오면 모든 것은 메이테이 힌두교도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메이테이 기독교인이 쿠키족 기독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에 연루된 양측 모두로부터 무시와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김창윤·이경란 목사 부부 (열린문교회)

• 1면에 이어

- 이곳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어요?

김창윤(이하 김): “이전 사역지였던 병원 원목으로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병원에서는 저희를 말리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대상 22장 19절 말씀까지 주시면서 확실히 말씀하셔서 병원을 그만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권사님이 자신의 집에서 개척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당시 그 집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이곳으로 와서 돌아보니 음성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더군요. 이미 마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셨으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동네에서 전도하지 않고 교인들은 우리 교회로 모셔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도 성도를 모을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함께 신앙 훈련을 받으며 교체하던 한 집사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외부인을 잘 받지 않아 예배드릴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어요. 선뜻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함께 예배하게 됐고, 코로나 이후에는 동탄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지금은 동탄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기도하는 중이긴 합니다.”

주님 인도로 한걸음씩

- 결과적으로 경북에 교회를 개척하고 경기도에서 예배를 드리신 거군요.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1995년에 결혼을 하고 그 해에 신학을 할 마음을 주셨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을

니다. 어린 종의 말을 듣고 나병을 고치게 된 그 내용의 설교를 듣고 어머니가 제게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길 거라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축복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어요. 목회자 자녀로 자란 아내는 절대 목회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제게도 목회하지 않을 것을 다짐 받았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엄청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허락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막상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내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길은 목회자가 보이다. 목회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신대원 3학기를 남겨 놓고 자퇴를 했어요.”

- 어렵게 신학을 결정하셨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군요. 이후엔 어떻게 되셨어요?

김: “아내가 필적뛰었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다 갑자기 선교를 가자고 하더군요.”

- 갑자기 선교를요? 사모님은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되셨나요?

이경란(이하 이): “제게는 항상 선교라는 꿈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비행기만 봐도 ‘하나님, 저희는 언제 나가게 해주실 거예요?’라고 묻곤 했는데, 이제 신학도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러면 선교를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안 간다고 하더군요. 막연히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영어 과외 원어민 선생님의 필리핀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에게 ‘나는 선교가 꿈인데 너무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가 교수로 있는 학교로 오라고 하더군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도 뜻을 굽힐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무작정 필리핀으로 갔어요.”

-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김: “아내는 영어를 배우면서 선교에 대한 폭을 늘리길 원했어요. 그러나 저는 필리핀은 나후된 나라여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인 어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강권적으로 제게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의 타의로 집사람을 따라 필리핀으로 갔어요. 집도 팔고 돈을 좀 만들어서 필리핀에 도착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선교 사역을 하다보니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 전도를 위해 모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김창윤 목사. 제공: 김창윤 목사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2년 정도 버티고 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힘들다고, 돌아가자고요. 그러나 아내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선교 사역에 실패를 경험하고

- 사모님은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이: “필리핀에서는 공동으로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앞만 보고 달려 나가는데 목사님은 점점 뒤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점점 거리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남편도 끝이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간 거죠. 저는 이후 5년 동안 필리핀에 남아 사역을 이어갔어요.”

- 목사님은 한국에 혼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한국에 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제 예

배 안 드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요. 차마 ‘안돼.’라고 말을 못하고, 갈 테니까 사역도 시키지 말고 주일 하루만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제가 트럭 일을 하게 됐어요. 평일에는 음료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했어요. 친구와 함께 지내는 5년 동안 교체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던 제 믿음이 친구를 통해 점점 회복됐어요. 제가 당시에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깊은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힘드니까 병이 생기더군요. 하루는 열이 아주 많이 났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

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연합해도 이 사람은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지내고 있는 경기 수원으로 갔어요. 마침 다시복음앞에 집회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됐죠. 이어 복음학교까지 가게 되면서 주님이 복음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남편과 제가 복음 앞에서 외장창 깨졌어요. ‘우리가 진짜 지옥 푸경을 밟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내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였는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나니까 큰 회개가 일어났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2차 선교를 준비하는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주시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며

- 복음 앞에서 가정이 회복이 됐네요.

김: “이후 서울 송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농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뭘 뜯어먹는 농사요?’ 저희는 서울에서 자랐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막막했어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요.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농사할 수 있는 기도원이 있다면서요. 그곳이 전북 남원 호렙산기도원이었어요.”

- 남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김: “이곳에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가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감자를 심을 때 땅에 검은 비닐을 쳐요. 짙은 비닐에 구멍난 곳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구멍이 없는 곳으로 올라온 싹들은 모두 녹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찢으면서 그 싹들을 비닐 밖으로 꺼내고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것이 목상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살려주신 거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지요. 농사를 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디서든, 어느 때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GN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남원 호렙산기도원에서 배추 수확에 참여한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공: 김창윤 목사



캄보디아 청소년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의 능력 실감

캄보디아 소금과 빛 국제학교(소빛학교)에서 지난 6~9일까지 복음 수련회가 진행됐다. 현지인에게 한국말로 전하는 복음선포는 처음이었다. 성찬식까지 다 마치고, 학생들에게 3박 4일 동안 들었던 진리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선착순 10명 정도만 나눠보자고 도전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기록을 시작했지만, '과연 누가 나와서 내놓을까? 어떤 내용으로 내놓을까?'라는 생각에 별 기대감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서대로 나와서 정확히 자신이 만난 복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목사사이시고 이모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이모를 따라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친구랑 축구나 게임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2, 3번 정도 교회의 헌금을 훔쳐 친구랑 과자를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빛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친구랑 많이 싸우고 욕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음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가 이렇게 더러운지를 알게 되었고, 바뀌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형제 2조 야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갔지만,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간식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만약에 간식이 없었더라면 나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빛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친구

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입으로 친구의 마음을 상처받게 한 적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나는 내 입으로 '난 죄인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공부 잘하게 해 달라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기도를 할 때에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행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 캄보디아 소금과 빛 국제학교에서 열린 복음 캠프. 제공: WMM 동남아시아지부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자매 3조 싸우보리)

"존재적 죄인, 죄 곧 나 나 곧 죄, 병든 자야.' 참 어려운 말들임에도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의 선포가 정말 감격이었다. 복음은 정말 능력이다! 이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캄보

디아를 넘어 열방으로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가게 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한다. [GPNEWS]

김이순 선교사
(순회선교단 동남아시아지부)

복음의 능력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항상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죄인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稱義)이다. 둘째, 주님은 죄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 '중생(重生)'이다. 칭의와 중생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죄의 용서와 마음의 변화는 구원의 필수 요소이다. 칭의와 중생은 서로 분리되거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와 더불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는 그와 더불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능을 베푸신다. 이 둘은 영광스런 복음의 근본 원리에 속하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가는 데 죄 사함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마음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죄 용서는 무익한 선물에 불과하다.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태아를 낙태하듯 소를 도살한다면 그 도축장은 당장 폐업될 것”

미국에서 내년 대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지난 7일 치러진 주별 선거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를 거뒀다. 또한 오하이오주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된 '낙태권리 보장'이 주민 투표를 통과했다. 이에 라이언 데니스 박사는 데니스포럼의 기고문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태에 대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11월 7일,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모든 주에서 낙태 허용 확대가 승리했다. 미국인의 약 69%가 임신 초기의 낙태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첫 12주를 넘어서면 이러한 지지는 빠르게 약화된다. 미국인의 과반수가 실제로 임신 2기(55%)와 3기(70%)의 낙태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인 69% 임신 초기 낙태 지지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 특히 임신 2기와 3기에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입장의 세부 사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낙태가 진정으

로 수반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임신 초기에 낙태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비극적이긴 해도 야만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신 후기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태아를 자궁에서 흡입술로 제거하기 때문에 너무 커진 경우, '확장 및 제거'라는 의료 절차를 사용한다. 이 절차는 자궁경을 확장하고, 흡입 및 기타 기구를 사용하여 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한다. 수술 중에는 산모가 마취를 받는다. 낙태 수술 중 사용되는 산부인과 도구는 일반적으로 아기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자궁에 있는 태아를 절단한 다음 한 조각씩 꺼내는 데 사용된다. 그런 다음 '조각난 태아 부분'을 재배열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한다. 전체 낙태의 약 11%를 차지하는 임신 2기 및 3기 낙태의 약 95%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

태아도 고통을 느끼는가?

처음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태아가 24주에서 25주가 지나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정당화됐다. 아직 살아 있는 태아를 25주 이전에 절단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 미국 오하이오주는 지난 7일 주민투표를 통해 낙태 보호를 명시하는 1호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유튜브 채널 LOCAL 12 캡처

는 여전히 많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브리짓 킬 박사는 "현재의 신경과학적 증거는 임신 초기에 태아가 통증을 인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태아가 자궁에 7~8주 정도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결론은 비단 그녀만의 생각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15주 이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낙태된 모든 태아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낙태 클리닉에서 많은 아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도축장에서 소를 도살한다면 하루아침에 도축

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 태아의 가치와 인간성에 대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태아도 소 만큼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변화로 가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문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태아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 낙태에 수반되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낙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믿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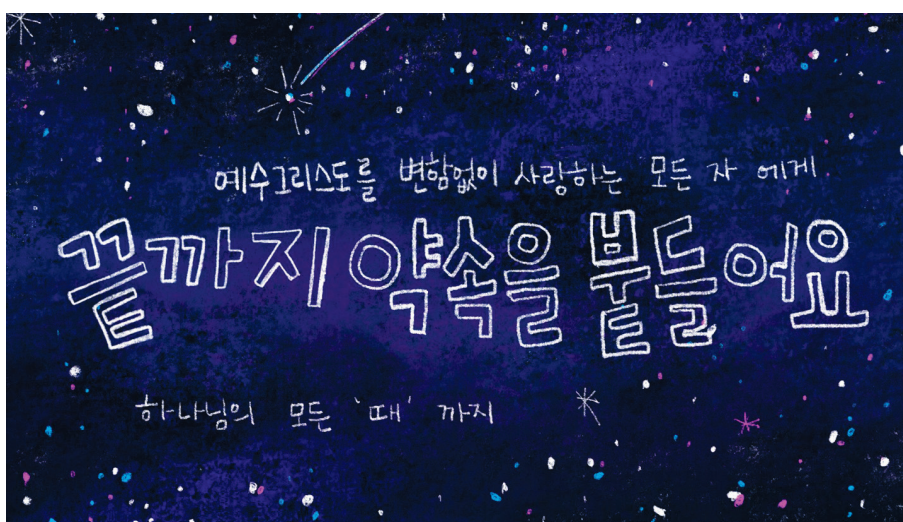
한 걸음 떼는 시작부터 전부의 믿음, 절대 믿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근거도 두지 않았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되지 못하는 약점을 그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야만 가능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너의 가능성을 0.001%도 믿지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을 믿지 말라. 네 믿음은 순도 100%의 오직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고 10살 차이인 사라가 90세 할머니가 됐을 때

임신과 출산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아무리 인간의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애를 낳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 지 25년이 지나고 있었다. 25년이라는 세월만 지나가 할머니가 돼버린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고 인간의 최선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한다.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믿음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믿음이다. 그 믿



일러스트=이예원

음에 전부를 걸었고 자기 운명을 다 걸었다. 흔들리는 공격이 올 때에도 절대 믿음이였다. 흔들릴 수가 없었다. 흔들리다가도 언제나 출발할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고 오직 그것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었다. 그 삶을 시작할 때 아브라

함은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났다. 심정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고향을 떠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타향을 떠돌았다. 그의 믿음은 전부였다. 그가 그렇게 떠도는 이유는 고향이 멀어서 못 돌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

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할 때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전부된 믿음' 이것 빼고는 할 말이 없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그 시대에는 다른 지역에 그냥 들어가면 침략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가버리면 그건 전쟁 상태이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무 보장도 없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대책이 있어야지 상식 있는 거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식보다, 대책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믿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는가?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 못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걸음 떼는 시작부터 전부의 믿음이었고, 절대 믿음이였다.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출시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1.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2. 간호조무사 (영양사 자격소지자 우대)

문의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 010-8528-3217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0



“주님은 내게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셨다”

기독교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의 의무 단기선교 과정으로 A국에서 2년을 지내다 돌아왔다. 그리고 그 동안의 시간을 정리하며 다음 순종의 걸음을 걷기 전에 복음사관학교(GNA)라는 신앙 훈련을 마쳤다. 6개월간의 GNA 훈련생을 거치고, 다음 6개월은 간사로 섬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이 마무리될 무렵, 다음 부르심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 중에 있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여기를 가라, 저기가 맞다.”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 며칠을 혼란한 마음으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금 주님은 내게 어떤 곳으로 가라, 마라 하시며 일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부터 ‘어디를 가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말씀 안에서 발견한 주님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초대였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청소년기 시절을 보냈던 헤브론원형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전혀 생각하

지도 않았던 선택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매 학기 바쁘



일러스트=고은선

고 치열한 시간 속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데 학교 선생님이 되어 나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이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이 컸다. 분명 주님을 따라 왔는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때로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아니라서 고통이 두려워요. 복음은 기쁜 소식

은 젊은 나이에 평범한 청년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면서 사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주고 싶으셨던 주님은 나의 그 유치한 기도에 응답해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다. 그 시간을 지나며 주님은 내게 물어오셨다. “은유야, 좋을 때만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눈물만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그 질문은 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나는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은 내가 겪는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누려지는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행복을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주님께 고백했다. 내가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할 때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젊음도, 시간도, 원함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이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셨다. [G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10. 25 ~ 11. 14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광희 김선례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애심 김종관 박경희 박신희 박영순 신혜경 안민자 오세주 유영권 이귀봉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정요한 정호진 조명숙 존/정희 조형광 최근희 최영석 최점옥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현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서산선한목자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예교회 오직예수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참종양터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시마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131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한 부흥을 위하여

탈북 시도 주민들… 지뢰 사고로 사상 잇따라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최근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들이 지뢰를 밟아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

라 발생했다고 지난 6일 데일리 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함경북도 무산 국경 일대에서 지뢰 폭발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려던 주민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행이었던 이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강 건너기를 시

도했는데, 양쪽 그룹 모두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북중 국경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폭이 좁아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비교적 잦은 곳들에 상당히 조밀하게 지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에서는 지난 9월에도 주민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지뢰를 밟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지뢰 폭발 당시 야밤에 두만강 쪽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시뻘건 불빛이 번쩍했다.”며 “시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을 건너려던 이들은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들 절박하게 강을 넘

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주요 탈북 경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감시 카메라를 빼곡하게 설치해 북중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

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목숨 걸고 탈북하려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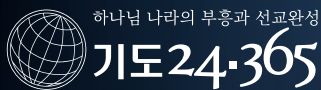


▲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에 지뢰매설을 진행했다.

北, 지난해 결핵 환자 13만 4000명 ... 전년 대비 1000명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북한의 결핵 환자가 1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늘어 고위험 국가에 또다시 지정됐다고 밝혔다. WHO가 지난 7일 발표한 ‘2023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 결핵(TB)’과 여러 가지 결핵치료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MDR/

RR-RB)’ 모두에서 고위험 국가에 지정됐다. 한편 북한에서 결핵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양실조는 전체 결핵 환자 중 절반 이상에서 관찰되었으며, 흡연과 알코올 중독, 당뇨 등도 결핵 환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북한 결핵 환자의 사망률은 전년도 보다 2% 포인트 상승한 19%로 나타났다. [GPNEWS]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2023.12.1. ~ 2024.1.31.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란?

구약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루 24시간을 작정하여 쉬지 않는 기도의 성벽을 52일 동안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하루 24시간 연합기도를 동원할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ver.9)



- 1권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 2권 복음의 능력, 박해를 이긴 교회!
- 3권 복음의 축복, 다음세대를 세우라!
- 4권 복음의 실제, 죄를 진멸하라!
- 5권 복음과 선교, 그날이 오기까지!
- 6권 복음의 승리, 영적전쟁에 이긴 교회!



- |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중 24시간 단위로 하루를 정합니다. (단, 주일과 성탄절은 제외)
- |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 |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 문의전화** 010-9440-4365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기도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기도24·365 홈페이지(prayer24365.org)에서 확인하세요.